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3.11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호르무즈 둘러싼 긴장감 여전..미국 증시 혼조 마감

- 미국 증시 주요 지수 등락 끝 혼조 마감: 다우 -0.07%, 나스닥 +0.01%
- 호르무즈 둘러싼 긴장감 여전..트럼프 "기뢰 부설용 선박 타격 진행 중"
- 반도체주 회복세-소프트웨어주 약세 지속

Summary

3월 10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초반의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 다우지수는 0.07% 하락한 47,706.51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0.21% 하락한 6,781.48에 마감함.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1% 상승한 22,697.10에,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은 0.22% 하락한 2,548.08에 거래를 마침.

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조기에 종식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제유가가 낙폭을 확대하고 증시도 상승했지만 최요충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혼란은 여전함을 확인한 점이 장 중 유가 낙폭 축소, 주가지수 상승폭 반납으로 이어짐. 미 에너지부 장관은 이 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 미국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 호위 소식을 알렸지만 이는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항로에 기뢰를 설치하는 징후를 미 정보당국이 포착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뢰 제거가 즉각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례 없이 강력한 군사적 조치가 따를 것이라 경고. 이어 기뢰 부설용 선박에 대한 타격이 실제 진행 중이라고 밝혀. 에너지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이 날 국제유가는 이란전 발발 이후 처음으로 하락. 다만 미국 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이번 사태로 갤런당 3.54달러까지 상승해 1년 반만에 최고를 기록. 한편 미국 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현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고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뚜렷한 방향성 없이 마무리된 미국 증시에서도 다만 전거래일에 이어 반도체 업종의 회복세와 소프트웨어 업종의 약세는 뚜렷했음. 전일 3.9% 상승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0.7% 추가 상승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인텔은 3% 내외 상승, 엔비디아도 1%대 상승세 유지. 정규장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약세가 이어진 가운데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은 시간외 거래에서 분위기 반전. 클라우드 부문 매출 호조에 기대 이상의 전분기 실적과 가이던스를 공개, 시간 외 거래에서 강하게 상승.

(다우 -0.07%, 나스닥 +0.01%, S&P500 -0.21%, 러셀2000 -0.22%)

특징종목

통신서비스와 기술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했고, 유가가 급락한 영향으로 에너지 업종 약세가 두드러짐. 엑슨 모빌(-1.54%), 셰브론(-1.66%), 옥시덴털 페트롤리엄(-2.99%), 코노코필립스(-2.46%).

제약 바이오 업종은 대체로 약세였지만 버텍스 파머슈티컬(+8.31%)은 상승. 면역 글로불린 A 신병증 치료제인 포베타시셉트에 대해 진행 중인 임상 3상이 36주차에 1차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혀. 오펜하이머와 씨티그룹, 모건스탠리 등이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
전일 노보노디스크(-2.66%)와의 법적 분쟁 종료 소식에 40% 이상 폭등했던 헬스케어 플랫폼 힘스 앤드 허스 헬스(+5.91%)는 이 날도 추가 상승.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힘스 앤드 허스 헬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에서 중립으로 상향.
리비안 오토모티브(+4.22%)는 TD 코웬이 투자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가도 기존 17달러에서 20달러로 상향. 올 들어 주가가 약 20% 가량 하락한 상황에서 신차 R2 SUV 출시를 앞두고 있어 위험 대비 수익 측면에서 매력적이라는 분석.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10.18%)는 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 투자의견을 시장수익률 하회에서 중립으로 상향. 마진 추이와 매출 성장세, 유동성이 모두 안정화되어 하방 위험이 상당히 감소했다는 평가.
이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3.524%), 엔비디아(+1.16%), 인텔(+2.63%), 램 리서치(+1.93%),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2.05%) 등 반도체주는 전일에 이어 회복세를 유지. 반면 소프트웨어주는 대체로 이틀 연속 하락. 오라클(-1.43%), 마이크로소프트(-0.89%), 서비스나우(-4.36%), 인튜이트(-4.16%), 어도비(-2.59%). 다만 오라클은 마감 이후 발표한 전분기 실적이 클라우드 부문 매출 호조에 힘입어 기대를 웃돈 가운데 가이던스도 기대 이상으로 제시돼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국채 수익률은 일제히 상승. 종전 가능성과 유가 하락 속에 초반 하락세를 보였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제히 상승폭을 확대. 2년물 금리가 5.4bp 상승해 3.590%를 기록했고, 10년물은 6bp 상승한 4.155%를, 30년물은 7.7bp 상승한 4.790%를 기록함. 외환 시장에서 미국 달러 가치는 유가 하락과 연동해 하락. 달러인덱스(DXY)는 전일 대비 0.24% 하락한 98.94을 기록. 상품 시장에서 국제유가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하락, WTI 기준 11.94% 하락한 배럴당 83.45달러에 마감. 브렌트유도 7.88% 하락해 배럴당 87.80달러를 기록. 금과 은, 구리 등 금속 가격은 상승세.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